

알지만 덮어두고 있던 사실

그들은 그 이후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이제 나 어떡해?”

“생각해 보자.”

“뭘 생각해. 지울 거야.”

“그 애 내 아기가이기도 하잖아.”

“아기라는 말 쓰지 마. 나만 독한 년 만들지 마. 죄책감 갖게 하지 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온 대사다.¹ 원치 않은 시기에 찾아온 손님은 예상치 못했기에 혼란스럽고,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

1 tvN 드라마(20부작), 2022.4.9~2022.6.12 방영.

였기에 맞닥뜨리게 될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 손님이 청소년이라는 미성숙한 나이에 찾아온 임신이라면 더더욱. 한편, 드라마 속 청소년 임신은 그 ‘찐’ 현실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기 일쑤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속 등장인물 고교생 ‘영주’는 ‘현’에게 “나 진짜 너만 믿고 직진한다!”를 외치며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다. 이들은 아름다운 청춘들의 사랑으로 비춰지며 해피 엔딩으로 막을 내린다. 마치 여느 동화 속 결말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과연 그들은 그 이후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드라마의 결말은 현실의 시작일 뿐이다. 현실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출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는 ‘청소년의 임신’이라는 사건에서 직면하게 될 첫 번째 문제일 뿐이지 엔딩이 아니다. 선택 그 후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이를 낳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양육 과정에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 나아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해 성장시킬지 등등, 출산 그 후의 문제는 드라마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MBN의 관찰 리얼리티 예능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는 10대의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의 출산과 육아의 현실을 포괄적으로 조명하며 지금까지 배제되어 왔던 출산 그 후의 이야기도 함께 다룬다. 엄숙주의²의 잣대로 청소년들의 섹슈얼리티를 감추고 덮어 두려는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고등학생의 성문화와 청소년 부모의 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새롭다. 필자는 사회적으로 외면받았던 고등학생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2 모든 정욕(情慾)을 억제하고 이성을 좇는 것으로써 도덕의 표준을 삼는 학설을 말한다.

통해 ‘청소년 임신’이라는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의 성(性) 경험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사회에서 10대들의 임신을 풀어나가는 <고딩엄빠>가 청소년의 임신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그 한계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임신과 육아를 다루는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덜어두고 외면하면 있는 사실이 없는 사실이 될까?

<고딩엄빠>는 ‘미성년자’라는 신분으로 부모가 된 학생들이 어떻게 부모가 되고,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를 다루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다. ‘고딩엄빠’로 지칭되는 이들은 모두 청소년이며 청소년기를 겪은 혹은 겪고 있는 아이들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발달이 이뤄지는 성장기이자,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다.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생물학적 변화와 생식기관 및 기능이 성숙되며 자연스럽게 성(性)적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성적 관심과 충동은 근대사회의 도덕과 규범 속에서 억제되고 은폐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다.³ 또한 근대 교육의 발흥과 학구열의 증대로 청소년들에게 ‘학생’ 신분으로서의 지위가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더욱 청소년에게 ‘성’은 도외시해야 할 대상으로 여

3 구병삼(BS Koo)·이찬(C Lee)·신재철(JC Shin)·김탁(T Kim)·송준(J Song)·홍명호(MH Hong)·박영주(YJ Park), 「10대 여성 성(Sex)에 관한 연구(Sexuality of Adolescent)」,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39(6)(1996).

겨졌다. 반면, 뉴미디어 활용에 능숙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성(性) 콘텐츠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예전보다 어린 나이에 성행동을 접하게 되었다. 이것이 청소년 성문화의 현주소다. 2020년 통계청 기준으로 한 해에 출산하는 10대의 숫자가 918명에 달한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질병관리본부 등의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 비율은 지난 2009년 5.1%에서 2019년 5.9%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올바른 피임법을 몰라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하는 청소년들의 비율도 상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7%였지만, 이 가운데 피임 실천율은 59.3%에 그쳤다. 서울신문·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청소년기에 임신·출산한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 심층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신한 이유에 대해 “피임에 실패해서” 41%, “피임 방법을 몰라서” 24%, “상대방의 강제에 의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6%였다(복수 응답).

드라마에서도 10대들의 임신이 소재로 다뤄지고 있는 요즘, 10대의 임신이 결코 덮어두고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며 이러한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실태를 수면 위로 올리려는 미디어의 흐름을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이 그들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미성년자라는 신분으로 부모가 된 학생들의 일상 속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찾아본다는 의도는 그 방향성을 잃었다.

포맷의 문제, 미성년 임신의 편견 ‘완화’가 아닌 편견 ‘강화’가 되기까지

해당 프로그램은 ‘리얼리티 관찰 예능’으로 10대에 부모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현재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미성년의 나이로 부모가 된 이들의 생활을 관찰하기에 앞서 이른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된 출연자들의 서사를 재연드라마로 구성해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VCR로 구성된 재연드라마는 재연배우들이 고딩엄빠가 되기 전까지의 만남, 연애 스토리나 가족사, 임신을 한 후의 생활 등을 연기해 그들의 서사를 보여주었고, 이후 출연자의 실제 생활을 보여주었다. 그 과정 속에서 출연자와 고정 패널 박미선, 하하, 인교진 세 명의 MC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심경을 공유하며 커뮤니케이션했고, 성교육 전문가가 지식을 전달하거나 심리 상담가가 상황에 대한 조언 등을 전해주며 방송을 진행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만 본다면 미성년자의 임신에 관한 스토리를 전달하면서 기획의도대로 청소년의 나이에 부모가 된 이들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그들을 향한 편견을 깰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시청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청소년이 부모가 되겠다는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떠한 계획도, 준비된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고딩엄빠들을 향한 편견을 깨부수겠다던 <고딩엄빠>에서는 고딩엄빠들의 무계획적이고 여전히 어린, 대책 없는, 아직 누구를 양육할 능력이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임신이 되었다고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님에도 임신이 되었으면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말뿐인 책임감’을 보여준다. 출연자들은 무계획 임신 후 책임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나에게 온 이유가 있겠지”라며 혹은 성인인 남편이 아직 고3인 아내에게 “우리 아기 심장 소리가 계속 맴돌아, 다시 생각해 보자”라며 여자의 인생 앞에 주어진 진로는 무시한 채 아이의 심장 소리를 거론하며 출산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들은 어떠한 계획이나 앞날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은 채로 ‘책임’이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인 책임은 논외로 하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며 청소년의 나이에 부모 되기를 선택한다. 물론 청소년에 임신을 하게 된 이들이 계획을 가지고 진정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생활 속에서 관찰이 된다면 기획의도를 달성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어지는 고딩엄빠들의 출산 후 생활은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어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첫 의지가 무색할 정도로 제대로 부모로서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2년 3월 13일 방영된 <고딩엄빠>에서 ‘고3맘’ 이루시아는 생후 20개월 된 아기에게 간이 센 냉동식품을 먹이는가 하면 아이를 더러운 환경 속에서 방치하다시피 양육한다. 이 외에도 책임을 지겠다는 당당하던 남편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거나, 책임을 진다던 출연자가 아이를 키운다기보다 그들의 부모가 출연자의 아이를 양육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또한 가정폭력과 흥기 난동으로 논란이 된 청소년 부모도 있었다. 회차와 시즌이 늘어갈수록 고등학생 엄빠가 아니라 중학생 엄빠가 등장하기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대책 없는 청소년 부모의 모습도 노출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청소년 임신과 양육에 대한 편견을 깬다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을 강화하고 주입하고 있다. 어떤 누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청소년의 나이에 부모가 된 이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깰까? 출연자의 책임의식 부재가 프로그램 탓은 아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의도를 설정했다면, 그리고 그 의도가 미성년의 나이로 부모가 된 이들의 편견을 깨고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었

다면 출연자들의 모습이 마냥 이상적일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하고 오히려 이들을 단순 관찰하는 예능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지 말았어야 했다. 물론 프로그램 구성 중간에 성교육, 전문가 상담이라는 코너가 있지만 이미 부모가 된 이들에게 피임법을 가르쳐주거나 ‘책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와닿게 할 만큼의 시간이 되지 않아 그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면이 있어 부족하다. 오히려 〈금쪽같은 내 새끼〉와 유사한 포맷으로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과정과 그들의 서사, 그리고 그들의 실제 생활을 돌아본 후 그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솔루션을 통해 그들이 말하는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도움을 주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스크린에서 보여주었다면 청소년 부모가 된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더불어 임신과 출산, 양육이 단순히 가벼운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임신’이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공론화되고 현실적인 고민거리이자 과제로 남았을 것이다.

패널의 말과 생각은 시대를 반영한다

〈고딩엄빠〉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방송에서 중요한 것은 패널의 역할이다. 패널은 시청자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나 통념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시대별로 패널들의 언행을 보면 그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 노출되는 패널들의 역할은 방송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패널의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청소년 임신과 양육’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딩엄빠〉는 예능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패널의 언행이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자칫 ‘청소년 임신’이라는 사실이 가볍게 치부될 수 있기도 하고 패널이 그들을 향해 내뱉는 충고와 공감의 청소년 부모를 그리는 시선이 되어 미디어를 시청하는 누군가에 잘못된 가치관과 신념을 갖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딩엄빠〉에서 박미선과 하하, 인교진은 각각 엄마, 친한 삼촌, 아빠 같은 존재로서 패널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공감과 충고,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특히 그들이 출연자들을 향해 취하는 스탠스는 “대단하다”, “기특하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임신에 대한 그리고 출산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임신을 했기 때문에 웅당 출산을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는 당위적 행위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는 사실 이전부터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통념이다. 이는 ‘낙태죄’라는 것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임신을 했는데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였던 것이다. 아이를 하나의 객체로 보아 그를 살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임신을 했다면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세상이었다. 그러나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4월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부로 낙태죄는 형법상 효력을 잃게 되었다. 낙태죄에는 어폐가 있기 때문에 형법상 효력을 잃게 된 것이다.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이다. 낙태죄는 여성에게 ‘출산’이라는 선택지만을 남겨두고 남성에게는 낙태를 종용하지만 없었다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여성에게만 불리한 처벌이었던 것이다.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부재한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남성의 경우 회피나 도망을 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당연함에도 남성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진 칭찬받을 만

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낙태가 죄였고, 임신 중단과 출산 중 어떤 것이 옳다라는 당위성이 법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한 관념이 결국 낙태죄가 효력을 잃게 되었음에도 <고딩엄빠>에 출연한 패널들은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선택을 했기에 “기특하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미디어 속에서 그들이 사회적 분위기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입장에서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어린 나이에 무계획으로 ‘출산’을 택한 이들을 칭찬하고 기특한 대상으로 본다면 여전히 이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이들의 선택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패널들은 자신의 역할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의 문제는?

미디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딩엄빠>에 출연한 청소년 부모들을 보면 그들이 그토록 어린 나이에 책임지기 버거운 상황을 만들게 된 원인을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및 부모 교육의 부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학구열의 증대와 경쟁주의 사회 속에서 학문에 대한 교육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부모 교육과 성교육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필수적인 교육이 공교육 현실에서는 너무 기초적이고 시대에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가 인지하고 청소년 대상의 올바른 기초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제도적 지원을 단순히 알리는 것을 넘어서 출연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제도적

방안을 컨설팅해 주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여준다면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보는 시청자, 또는 이를 시청하기 거부하는 소비자 역시 이들을 미성년에 부모가 된 그들을 정상/비정상 가족 이분법적 측면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을 기특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다만, 편견을 갖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또 다른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바라보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미디어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자기 결정권적인 모습을 비출 필요가 있다. 임신 중단 혹은 출산 중 하나가 옳은 결정이라는 당위성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결정 과정과 방식이 드러난다면 대중은 그들을 향해 어떤 비난과 옹호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또, 그 어떤 선택을 한 이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